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오후(4부)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4부(오후)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7월 11일 (제1105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 품격 있는 사람

꽃에는 향기가 있고, 음식에는 맛이 있다면, 사람에는 품격이 있다.

품격(品格), 이는 사람 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으로, 기품이나 품성과 같은 맥락의 용어다. 품격이란 명품 옷을 걸치는 것으로, 멋진 차를 타고 럭셔리한 집에서 산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왜냐? 품격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것이니까. 내면의 건강한 마음가짐과 반듯한 행동거지에서 품격이 생기고, 절제, 배려, 정직, 신의 등의 덕목을 지킬 때 품격이 보인다.

나는 '멋지다', '잘생겼다', '아름답다'는 말보다 '젠틀맨(gentleman)'이나 '엘레강스(elegance)'라는 말로 표현함을 좋아한다. '젠틀맨'은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예의가 바른 남자를 일컫고, '엘레강스'는 '우아함, 고상함'을 내포하는 말로, 외모보다 내면의 멋스러움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행 17:11)라고 적혀 있다. '더 신사적'이란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고상하다', '마음이 트였다', '너그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다른 말로 '품격 있다'는 말이 된다. 나는 우리 예수중심교회 성도들도 베뢰아 사람들처럼 품격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려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해야 하고(벧후 1:5~7),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갖춰야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남을 감사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함을 강조했다(고후 2:14~15). 그것이 믿는 자의 품격이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매일 의식적으로 선량하고 기품 있는 마음과 말, 친절함을 갖기 위해 노력하면 그것이 습관화될 것이고, 품위와 격조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노력해보자!

## 고정관념의 틀을 깨라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Promise is very important!"(약속이 매우 중요하다)

"Kindness is very important!"(친절함이 매우 중요하다)

"First impressions are very important!"(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총회장 목사님이 3주 동안 JCA카데미와 청년부예배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주제들이다. 이에 더하여 목사님

은 목사가 나온 것 아니겠나?

너희들은 신세대라 고정관념이 없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희 안에도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 '나는 남들보다 못 배웠어.', '나는 흠수저야.', '외모 지상주의 세상에 나는 너무 못났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걸 깨야 새로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은 너희를 좌절하게 하는 아킬레스건이고, 성공의 저해요소란다. 그런 자들은 대체

다. 일어나자.' 하면 하는 거야.

변화가 두렵니?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셔도 네가 변화하지 않고 틀에 박힌 생각, 닫힌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도 어찌 할 수 없단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5시간 기도하고 왔단다. 나는 분명히 너희를 성공시킬 자신도, 능력이 있단다. 내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 너희는 분명



청년부 토요일예배(문래동 교육관)

은 지난 토요일, 청년부 토요일예배를 직접 인도하시며 고정관념을 깨라고 역설 하셨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성공할 수 있다. 고정관념이 무엇이나? 굳을 고(固), 정할 정(定), 볼 관(觀), 생각 념(念)으로, 옛날 생각으로 갇혀 있는 것, 곧 굳은 생각, 닫힌 생각을 말하는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야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전화는 꼭 유선이어야 한다, 자동차는 꼭 기름을 넣어야 한다, 회사에 나가야 일을 할 수 있다, 목사는 꼭 가운을 입고 보면 대를 놓고 설교해야 한다, 교회는 꼭 성전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니까 핸드폰이 나온 것이고, 수조자동차나 전기자동차가 나온 것이고, 인터넷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전국과 전 세계 체육관을 성전 삼아 복음을 전하는 나 같

로 '내 주제에' 하면서 팔자타령이나 하게 되지. 서자로 태어난 입다, 과부가 된 룯, 여섯 남자를 데리고 살던 여인, 소경 바디매오, 고아 에스더... 모두 팔자타령을 하자면 끝도 없을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고정관념을 깨고 일어나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지.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갔던 네 친구들을 보라. 그들의 생각은 남달랐단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들어갈 수 없으니 다음에 오지' 하며 돌아섰을 거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을 바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인 친구를 짊어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왔지 않니? 바로 네 친구의 생각이 낳은 결과란다(렘6:19).

생각은 너희 것이야. 너희 것을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도 못하냐? 생각을 바꾸는데 돈이 드냐, 학벌이 필요하냐? 네가 하고자 하면 하는 거야. 네가 '이대론 안 된

히 성공하게 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단다.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말뚝에서 2m 벗어나면 전기충격이 온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철장이 없는데도 말뚝에서 멀리 못 가고 조련사가 던져주는 음식물이나 받아 먹고 어울리지 않는 서커스를 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도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그저 삶을 연명할 뿐, 누리는 삶은 기대할 수 없다. 나는 아니다 싶은 것이 있으면 과감히 잘라내고, 그것에서 돌아선단다. 내 인생에 대충은 없기 때문이다. 대충이 세상을 살겠니? 아니면 생각을 바꿔 멋지게 살겠니?"

청년은 나라의 희망이고, 교회의 등불이다. 이들의 생각이 우리의 내일이다.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 전하는 이 말씀을 습관화하면 반드시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의 인재들이 배출될 것이라 확신한다. 신묘수 전도사

**주일에배(20% 대면예배, 백신접종자는 제한인원에 상관없이 참석가능)**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4부: 오후 5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빌4:4~13)

# 내가 본 이초석 목사

지난주일 우리는 서울교회 담임 이시대 목사가 '내가 본 이초석 목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영상을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되새겨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빌 3:17)”.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아무나 쉽게 하는 말이 아닌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충분히 본이 될 만한 사람임을 자타가 공인했기 때문입니다.

#### 청출어람(靑出於藍) 스승의 바람이다

우리 목사님도 “나를 본받으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당당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흉내 내곤 합니다. 몸치인 제가 목사님이 춤추는 것도 따라하고, 찬양 중에 추임새를 넣는 것까지 따라합니다. 흉내 내다 보면 배우게 되고, 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닮고 본받아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자면 이렇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보석 목사, 당시엔 집사였죠. 그와 함께 1박 2일로 용문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기도원 입구에서 수속을 밟는데, 직원인 분이 직분과 소속을 묻기에 대구예수중심교회 목사라고 했더니 그분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땅끝 예수전도단 회원이고, 늘 우리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로 받아 듣고 있다며, 이런 산중에서 그 교회 목사님을 뵈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김보석 집사가 ‘이 분이 이초석 목사님 동생’이라며 저를 소개하자 그 분이 더욱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둘만이 쓸 수 있는 커다란 방을 주셨습니다. 예배 후 방에 돌아와 쉬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 여러 명의 사람들이 문 앞에 서있었습니다. 그 교단의 목사들이었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의 동생이 왔다니까 이분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대체 이초석 목사님은 어떤 분이니까? 어떤 분이길래 세상을 발각 뒤집어 놓으신 겁니까?” 저는 가만히 있다가 딱 한 마디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께 미친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정말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예수가 야수에게 미친놈’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백문

백답(百問百答)이 예수, 천문천답(千問千答)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 제대로 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본토, 부모, 친척, 처자, 친구에게서 돌아섰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단 한 번도 ‘왜요?’라고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예’입니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뿐인 분입니다. 그분은 원래 무엇에 꽂히면 미치는 열정적인 분입니다. 예전에 수석에 취미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수석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대개 주말에 나가서 강가를 슬슬 돌아다니며 하나나 두 개 정도 수집하는



총회장 이초석 목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포클레인으로 강가의 돌을 다 파서 고른 다음 트럭에 싣고 집으로 가져와 정원을 수석으로 깔아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런 성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기에 목사님에게서 능력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목사님을 쓰시는 것 아닐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에 꼭 부합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습관을 목사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목사님은 하루에 기본 4시간, 집회에 나가면 7시간 이상을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회 37년이 눈 덮인 산야요, 물 없는 사막 같은 길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 힘든 길을 기도하셨기에 오늘까지 이르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목회 초창기부터 따라운 성도들, 심지어 목사님을 떠난 성도들까지도 불러가며 다 기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죄는 범치 않는

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겐 기대할 것이 없다.”

저는 한은택 목사가 해외집회 중에 목사님이 거하시는 호텔방에 들어갔더니 침대에는 누운 흔적이 아예 없고, 침대 옆에 두장을 걸쳐 깔아놓은 수건 위에 무릎 자국만 있었다는 글을 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그것이 우리 목사님의 삶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함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진짜 부지런하십니다. 천성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목회하기 전 사업하실 때 새벽까지

술을 먹고 들어와도 그냥 주무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샤워하고 바로 테니스 채를 들고 운동하러 나가셨습니다. 오죽하면 제 집사람이 ‘아주버님은 사람 맞아요?’ 할 정도였단니까요.

그 부지런함이 목회를 한다고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외국집회에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밤이 되어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지요.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러겠느냐이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새벽 2, 3시나 되어서야 사람들이 돌아가고 저도 제 숙소로 돌아와 씻고 자려고 하면 잠자리가 바뀌었으니 바로 잠이 들니까? 옆치락뒤치락 하다 잠이 좀 들었나 싶으면 여지없이 전화가 옵니다. “나다. 아직 자냐? 나는 기도 끝났다. 아침 먹자.” 아~~~ 정말 사람이 아닌 게 맞습니다. 그제 집회 끝나고 올 때까지 똑같습니다. 사람인 저는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어지럽고 몽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해외집회에 저를 안 데려가도록 기도했다니까

요. 함께 다니는 한은택 목사나 송초현 전도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오래 전 이야기지요. 송의동 인천교회 시절, 밤 12시가 다 되었는데 목사님이 교역자들을 불러 주차할 곳이 더 필요하니 성전 앞 들계단을 치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툭툭거렸습니다. ‘아침에 포클레인 부르면 한 시간이면 될 일을 굳이 그것도 밤에 시킬 게 뭐 있나.’ 했습니다. 목사님이 시키신 일이니 할 수 없이 그것을 아침까지 끝내고 일한 사람들끼리 사우나 가서 한숨 자고 점심 먹고 왔는데, 파놓은 곳이 깨끗하게 벽돌로 쌓여 있고 그 앞에 차까지 주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밤에 자고 아침에 하나, 밤에 일하고 아침에 자나 똑같다 생각했는데, 일을 하고 우리는 자고 왔지만, 다른 팀을 통해 일이 계속된 것을 보고 왜 목사님께서 밤에 일을 시키셨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이 있으면 먼저 해놓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 흉내 내다보면 닮아가는 법이다

넷째, 우리 목사님에게 닮을 것은 부정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긍정, 초긍정맨이십니다. 그 앞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가는 목사들에게는 따귀가 날아오고, 성도들에게는 아량을 베풀어서서 ‘나 귀먹었다. 안 들린다.’ 하십니다. 이것도 오래 전의 일인데요. 그때 대형집회를 위해 목회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중에 현수막 거는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전도사가 제게 “목사님, 요즘 현수막 거리에 불이면 벌금 물고, 바로 뜯긴데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있으면 좋을 걸, 제가 잘난 척하며, “목사님, 요즘 현수막 거리가 불이면 안 된다는데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목사님 눈꼬리가 올라가더니 천둥치는 소리로 “너, 나가! 네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전염시키고 있잖아, 나가!” 하시는 겁니다. 그 후론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정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없다.’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라고 문제가 하나도 없겠습니까만, 목사님은 믿음으로 그렇게 뿌리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문제없이 37년을 왔습니다.

여러분, 얼룩송아지는 엄마 닮고, 제자는 스승을 닮는 겁니다. 목사님을 닮도록 노력하고 본받으시면 영·혼·육에 분명히 성공하실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할렐루야!

:: 객원칼럼 ::

:: 오늘의 메시지 ::

# 목적 있는 훈련!

지난 5월 30일, 주일 4부 예배 설교를 마친 후 기도원으로 내려왔다. '건강을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목회에 복귀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는 총회장님의 권면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한 것이었다.

총회장님께서는 그저 말로만 '건강을 돌보라' 권하지 않으셨다. 다음 날 기도원까지 내려오셔서 직접 보양식을 챙겨주시며, 엉덩이 무거운 제자를 산으로, 시골 장터로 끌고 다니셨다. 그리고 뻑뻑한 일정들을 뒤로 하시고, 오히려 일주일간 함께 하시며 수많은 가르침과 성도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

이후 잠시라도 마음의 끈을 느슨히 할 새라, 예배시간마다, 교육 때마다 정말 실새 없이 마음의 담금질을 계속하셨다. 또 다시 안일함에 젖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시기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살아서 힘을 길러야 미래가 있다'는 목사님의 안타까움과 진심이 전해져서였을까? 매 시간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했다(요10:11), 그렇다고 목자가 양을 두고 먼저 죽으면 돼? 그게 선한 목자야?" 순간 깨달음이 천둥치는 것처럼 머리를 강타하고 심령을 후벼 팠다.

'아, 그동안 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 모든 사단은 자기 관리에 실패한 나의 어리석음이 발단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육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 어느 샌가 목은 땅이 되어버린 생각을 기경해야 했고(호10:12), 책부터 펼쳐드는 습관도 뜯어고쳐야 했다. 살기 위해선, 살아남아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변화와 실행력이 뒤따라야 했다.

이후로 지금까지 거룩한 구조조정을 진행해오고 있다. 빼격대는 육체를 단련하고, 안주하려는 녹슨 생각을 뒤엎으며, 지식으로 향하던 습관을 말씀 앞으로 복종시키는 인생개조작업 말이다.

입술이 터지고, 입안도 헐었다. 발가락은 물집투성이더니 이젠 제법 굳은살이 자리잡았다. 책상 위에 책들은 치워버리고 오직 한 권, 성경을 묵상하는데, 시간마다 송이 풀이다!

'신중여시(慎終如始)하라.' 했다. 처음처럼 이 마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 한결같이 신중하게 가지고 가길 원한다. 아직 한참 멀었다. 힘을 기르려면, 담금질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목적 있는 훈련은 나를 흥분시킨다. 내일을 기대하게 하기 때문이다. 영과 육이 더욱 건강해진 모습으로 목회 일선에 복귀할 날을 대망하기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시26:2).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소서"(사49:2).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 멋진 인생

애완동물용품점 앞을 지나다 눈에 띄는 강아지. 얼마나 까불고 예쁜지, 여우같이 생긴 강아지 포메라니안이란. 얼마에 분양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120만원! 우리교회 발바리 딸기가 새끼를 7마리나 낳았다. 걱정이 앞선다. 거저 주어도 안 가져가는데 7마리나~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니 귀하게 주인과 함께 아파트 방에서 좋은 것 먹고 자라는데, 사람도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귀티나게, 멋지게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가까워서 현웃만 입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본다.

며칠 전 사우나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연세가 드신 어른께서 한마디 하신다. 이제 황혼의 시간이 지나면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있을 때 좋은 곳으로 가서

먹고 싶은 것 사먹고 누리다가 가는 것이 최고이며, 자식을 잘 키워 났으니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지 말고 선한 사업에 기부하며 살다가 떠나는 것이 최고라고 하신다. 죽을 때 한 푼 가져가지 못하는 인생,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개처럼 대우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신다. 어떤 강아지는 분양 가격이 120만원, 어떤 강아지는 거저 줘도 가져가지 않는다. 값어치 없는 개처럼 되지 말고 멋지게 누리면서 쓰면서 입고 먹고 베풀면서 사는 것이 최고라는 어르신 말씀의 깊이를 생각해본다.

강아지 한 마리 값이 120만원. 호텔에 사는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개는 잡종이라서 새끼를 7마리나 낳았으나 거저 준대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 깊이 생각해 보면서 몇 자 적어보았다.

박인덕 목사



:: 성경에세이 ::

:: 내가 매일 기쁘게 :

# 대화 좀 합시다!

여보게!  
물이 마르면 고기가 다 죽게 되어 있지. 수문을 닫아버리면 물이 마르고, 물이 마르면 그 안에 사는 물고기가 죽는다는 거지. 마치 현금이 돌지 않으면 부도가 나듯 말일세. 그렇다면 가정에서 대화가 마르면 어찌 될까?

요즘은 가정은 집에 불과하지. 숙소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 잠자고 나오는 곳 말일세. 식탁 앞에서도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다들 일과에 지쳐 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게 우리 현주소야.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 된 거야. 왜 어른들이 콩가루 집안이란 말을 썼는지 아는가? 쌀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는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 잘 뭉쳐지는데, 유독 콩가루는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 비유한 것이라네. 각자 따로 노는 집안을 비유한 말이야.

콩가루 집안은 되기 싫지? 그러면 가족끼리 대화하게.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족이 하루 평균 대화하는 시간이 단 13분 정도라고 하더구먼.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애들은 학원으로, 부모는 돈벌이에 바빠 서로 마주칠 시간도, 대화할 시간도 없는 게지. 그렇게 해서 애들

이 좋은 대학에 가고, 큰 집은 갖게 될지 몰라도 과연 행복한 가정은 이를 수 있을까. 이혼율이 높아지고, 문제아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하네.

여보게!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길어지면 원수가 되는 법, 가족끼리라고 예외일까. 물론 바쁘지.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을 만들 수 있다네. 요즘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 가족끼리 돈독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꼭 가정예배를 드려야 하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127:1)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정이 바로 서기 때문이라네.

가족끼리 저녁에 모여 서로 대화하고, 가정예배를 드린다면 누가 그 가정을 무너뜨리겠는가.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인데.

봉우

# 혼자가 아닌 나

얼마 전, 쉽지 않은 일이 생겨서 고민했던 일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쉽게 해결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드문드문 '어떻게 하나?' 걱정했었는데, 내 입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 나왔다. "응, 걱정 안 했어. 기도했잖아? 안 그래요?"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꼈다. 걱정하는 중에도 한편으로는 잘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이 있음을 알았다. 내가 아무리 걱정 근심하며 전전긍긍해도 결국 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심을, 나는 믿고 있었다.

매일이 평탄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삶에 은총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지만, 삶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시련과 고난,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요즘에는 번아웃(Burnout)이 우리를 은혜에서 점점 떨어지게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날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다.

어렵고 힘들고 고독할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알지 못한다. 그러

나 예수님은 그림자처럼 단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머물러 계신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산재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될 때이다.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문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줄곧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음을 깨닫는 시간이다. 그 깨달음은 우리를 좀 더 강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어떤 시련과 위기가 와도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보호막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 에서에게 도망쳤던 야곱, 긴 시간 광야를 헤맸던 모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처럼 너도 주님이 늘 동행하심을 잊지 말아라.'고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 기억하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날 사랑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있음을.

전훈지 집사

:: 성경에서 배운다 ::

:: 귀를 기울이세요 ::

# 일기 위해서는 포기합시다!

국민 MC로 불리는 한 연예인의 고백입니다. 10년 가까운 긴 무명시절 끝에 최고의 MC가 되었지만, 흡연으로 인해 약해진 폐활량이 프로그램에 걸림돌이 되었고, 애연가였던 그는 결단했습니다. '다 가질 수는 없다. 일기 위해선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흡연을 포기했고, 덕분에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휴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구 종말이 오면 마지막으로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싶어요.' 그는 지금도 흡연하고 싶은 자신과 싸우며 날마다 담배를 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왕벌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여왕벌이 유전적으로 타고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개미와 여왕벌 모두 처음에는 같은 종류의 유충인데, 그중 꽃가루와 꿀 먹기를 포기하고 로얄제리만 먹는 벌이 여왕벌로 성장하고, 계속 꽃가루와 꿀을 먹는 유충은 일벌로 남는 다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좋은 말 씀을 먹고, 능력을 더하느냐도 중요하겠

지만, 천국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잘 포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상숭배, 술 취함, 방탕, 음란의 쾌락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안정, 관계, 명예, 신념 같은 귀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안정과 편안함'을 포기했기에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나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자식을 자신의 것'으로 키우고 싶은 '관계'를 포기했기에 사무엘을 대선지자로 만들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었지요. 요셉이 억울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을 포기했기에 종국에는 총리가 되어, 자신에게 꿈으로 계시하셨던 가족 구원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정치적 신념이 달랐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전 우리나라의 독립투사격인 열심당 출신 시몬, 대대 오에게 원수 같은 적국의 앞잡이 세리 마태와의 동역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 전파의 사명

앞에 과감하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했고, 덕분에 모두가 협력하여 초대교회를 이끌고,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며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잘 지켜가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그들에게 시험과 유혹이 없어서 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의 더 강한 공격 속에서도 성령을 힘입어 날마다 유혹을 '포기'하고, 가치 있는 천국을 위해 때론 소중해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었죠. 물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다가온 시험과 유혹을 포기하셨습니까? 내려놓기 힘든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먼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당신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당신의 그 용기와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 갈 것이며, 당신의 삶에도 생각지 못한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인명 집사

## '충성'

회사 동료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다. 이 친구는 몇 달 전 결혼했는데, 결혼 전부터 하나님께, "결혼하고 첫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부부가 약속했다고 한다. 그래서 부부가 회사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제자훈련을 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들의 1년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 말은 "야! 넌 돈 벌어야지? 승진 안 할 거야?"였다. 그때 동료가 한 말이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과 남편과 동행하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해!"였다. 당당한 동료 앞에 난 너무나 작아졌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전 1년 치 월급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1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릴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며 웃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또, 어느 날 다른 회사 동료가 자신의 친구 기도 부탁을 했다. 신학생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 평범한 크리스천인 자신의 친구가 유학생 신분으로 티베트로 선교를 하러 간다는 것이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를 가는 그 친구를 생각하니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저 친구처럼 포기하지 못하는 나를 주님,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주님! 제가 있는 자리에서 청년부 리더로서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미디어 선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웃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필자는 각자 다른 은사,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셨음을 깨달았다. 예수중심교인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봅시다(계2:10)!

송현혜

###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3)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많은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꿈꿈이 생각하다가, 곧 그 돈을 버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많은 재물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러고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앞둔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삶의 안정감의 근원이 나냐, 물질이냐?" 망설임 없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모든 통장에 있는 돈과 지갑 속의 돈까지 긁어모아 현금봉투에 담았습니다. 이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듯, "이 현금이 너에게는 수억보다 큰돈이지." 하시면서 진심을 다해 축복해주셨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목사님께서 저녁을 사주시겠다면서 사무실을 나셨습니다. 내심 목사님을 대접해드리고 싶었지만, 다 긁어모

아 현금했으니 돈이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생각에 답이라도 하듯,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야." 하시면서 여유롭게 길을 걷다가 어느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즐겁게 식사하던 중, 중년의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타 교단의 성도인데, 이초석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었다'고 반가워하며, 존경을 가득 담은 자세로 목사님께 인사 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 성도님은 식사비를 계산한 영수증을 들고 테이블로 찾아와 목사님께 축복기도를 받고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목사님이 대접받고, 덕분에 저까지 대접받으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예비하신 손길이 마치 '앞으로도 내가 지금처럼 너의 인생을 책임져주마.' 하는 것 같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그날 드렸던 물질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삶 가운데 여러 이벤트로 통장을 비워 흘러가게 하시고, 채워주시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작은 물질 드린 것을 자랑하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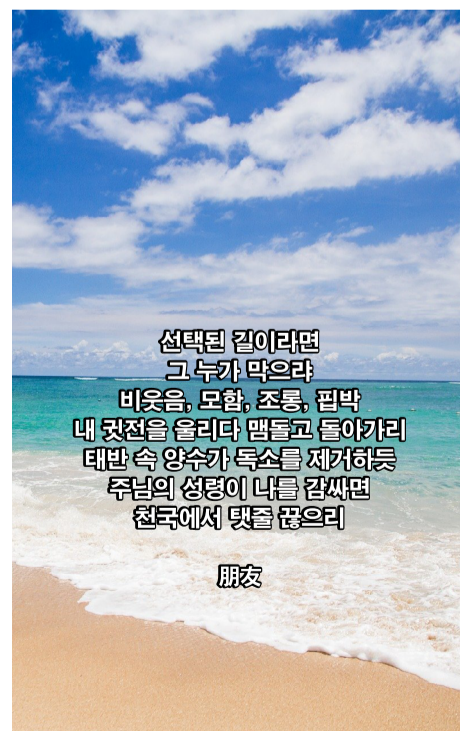
고 이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굳이 제가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기에 생색낼 게 전혀 없습니다. 또 지금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은 간증한 대로 꾸준히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오로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께 진심을 올려드리고, 이 글을 나 자신과의 약속의 증거로 삼아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매어 두기 위함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재물이 많아져도, 힘과 권력, 명예가 생겨도 지금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물으시며 진심 어린 대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궁핍할 때나 부요할 때나, 낮추실 때나 높일 때나, 어느 곳에 있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정명관

v-777@naver.com



선택된 길이라면  
그 누가 막으랴  
비웃음, 모함, 조롱, 핍박  
내 뒷전을 울리다 땀물고 돌아가리  
태반 속 양수가 독소를 제거하듯  
주님의 성령이 나를 감싸면  
천국에서 빛을 쬐우리

朋友